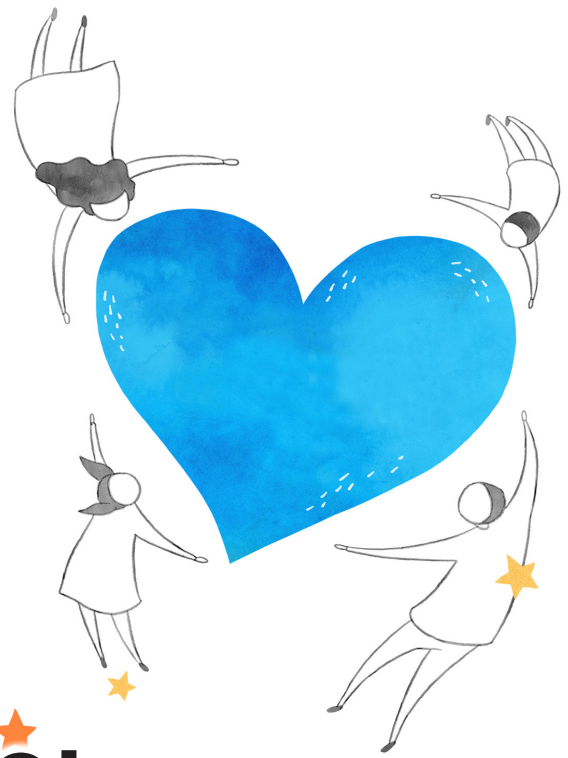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일시 2017년 7월 28일(금) 14:00~17:00

장소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회의실)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군산시
(사)들꽃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세 / 부 / 일 / 정 /

14:00-14:10	☐ 개회식 - 환영사 :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14:10-15:30 (1인 발표시간 : 20분)	☐ 발표 사회 : 이진우(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위원) 1. 청소년행복한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분석 및 모형 개발 - 발표: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 방안 - 발표: 김기쁨(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장) 3. 군산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지원 방안 - 발표: 김소현(달그락청소년기자단 ASPECT 대표) 4. 목포시 청소년활동 중심 마을 만들기 운영 사례 - 발표: 마희승(목포시청소년수련원 행복자치위원 대학생분과 위원장)
15:30-16:00	☐ 휴식
16:00-16:40	☐ 토론 토론 1 : 김세광(고신대학교 교수/ 발표 1) 토론 2 : 최인정(전라북도의회 의원/발표 2) 토론 3 : 김민재(목포시청소년수련원 팀장/발표 3) 토론 4 : 오성우(청소년자치연구소 사무국장/발표 4)
16:40-17:00	☐ 종합토론 및 폐회 - 사회자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발표자와 토론자, 외부 참석자 전원

차 / 례 /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분석 및 모형개발** 1
 - 발표자 : 오해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김세광(고신대학교 교수)

-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방안** 17
 - 발표자 : 김기쁨(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장)
 - 토론자 : 최인정(전라북도의회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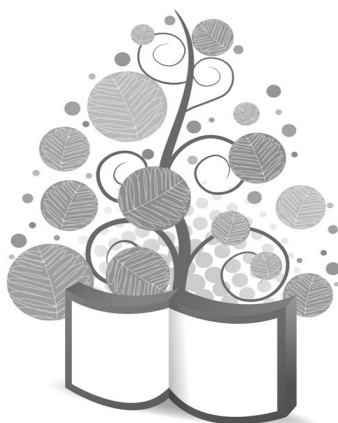
- **군산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지원방안** 29
 - 발표자 : 김소현(달그락청소년기자단 ASPECT 대표)
 - 토론자 : 김민재(목포시청소년수련원 팀장)

- **목포시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 만들기 운영 사례** 47
 - 발표자 : 마희승(목포시청소년수련원 행복자치위원 대학생분과 위원장)
 - 토론자 : 오성우(청소년자치연구소 사무국장)

발 표 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분석 및 모형개발

- ▶ 발표: 오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토론: 김세광 (고신대학교 교수)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 및 모형개발

오 해 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2017년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개념

- ✓ **공동체(communit)**의 요소 :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 등
- ✓ **지역공동체** : 지역 연대감만이 아닌 공통의 목표, 가치를 공유
최근 SNS 활용으로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는 경향
- **지역공동체**는 지역의 범위를 마을, 도시,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하면서 구성원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공유하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교육 등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생활단위라고 할 수 있음.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개념

- ✓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은 행복 마을(도시), 지역공동체,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등을 포함한 다소 광의의 개념임
- **"청소년행복마을(도시)", "청소년행복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용어가 지역적인 범위를 넘어 사업단위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마을공동체 운영 논리모델 개발의 기본 틀

- 다양한 집단 및 조직들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구축
- 규칙과 조례 등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
- 청소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 **주도적인 역할과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지원체계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 분석**
- 사례분석을 통해 **인프라를 확인** 및 분석 단위 별 **SWOT분석** 실시
- 각 사업의 공통점과 특이사항을 토대로 **사례분석 단위별 논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마을공동체 운영 논리모델 개발의 기본 틀

논리모델 개발의 첫 번째 영역

◆ 대상 및 주요 구성요소

- 2016년 12월 말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6개
- 법·제도 및 사업계획, 조직 및 운영체계, 재정확보 방안, 전문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 및 성과 관리 등.

논리모델 개발의 두 번째 영역

- ◆ 2016년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사례와 지자체 마을 교육공동체사업, 청소년수련시설중심 공동체 운영사례 등
- ◆ 주요 요인들로 주민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 노력, 지도자의 헌신적 역할,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채널 가동, 지역 내 자원 활용, 지역 네트워크 연계 및 특성화 사업 발굴,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등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성요소

실행을 위한 인프라 및 추진 전략

법·제도 및 사업계획

- 관련 법, 조례, 시행령
- 기본계획 및 운영 지침 마련
- 중장기 추진 로드맵 설정

조직 및 운영체계

- 운영 조직 및 역할
- 사업 및 활동에 따른 인원확보와 전문성
- 지역단위 사업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지정
- 전문가+청소년+지원기관+후원회+지역주민+학교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소통 기구 운영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성요소

실행을 위한 인프라 및 추진 전략

재정 확보 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조례 제정
- 지역단위 청소년행복마을 운영기금 조성 방안 마련
- 지역 내 후원회와 기업을 통한 기부 분위기 조성
- 중앙 및 지자체 공모사업과 시범사업을 유치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성요소

실행을 위한 인프라 및 추진 전략

전문 인력 확보와 역량강화

- 청소년 핵심역량 활동 분야별 전문가 및 활동가 양성
- 관련단체 및 기관 간 전문가와 활동가 네트워크 운영
- 지역 단위 정기적인 아카데미와 연구포럼 운영
- 행정기관, 민간후원단체, 청소년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구성요소

실행을 위한 인프라 및 추진 전략

프로 그램 개발 및 성과 관리

- 참가자의 핵심역량 개발에 초점
- 지역별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자체 브랜드화 방안 모색
- 사업영역별 성과관리 방안 마련
-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확대
- 우수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주민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혹은 노력
- 주민들 간의 이해를 돕는 노력
- 주민들을 이해하기 위한 마을 리더의 노력
- 마을 운영의 중심 기구

지도자 역할

- 해당 마을에서 지도자의 역할
- 지도자의 말을 경영전략
- 지도자로서의 마을 운영의 어려움

주민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상생제널

- 주민들과의 소통방법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 주민들의 소통방식
- 의견수렴과정에서의 갈등 해결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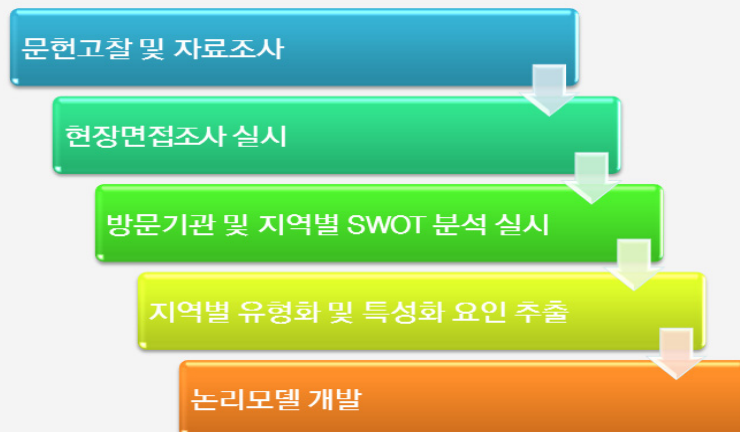
아동친화도시 및 마을공동체 운영 지역 면접조사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대분류	소분류
지역 내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 활용된 주된 자원 • 자원 활용 방법 •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효과
지역 네트워크 연 계 및 특성화 사업	• 연계된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 • 마을의 특색 프로그램(사업) • 타 지역과의 연계활동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 젊은 인력들의 마을 내 역할 •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 • 젊은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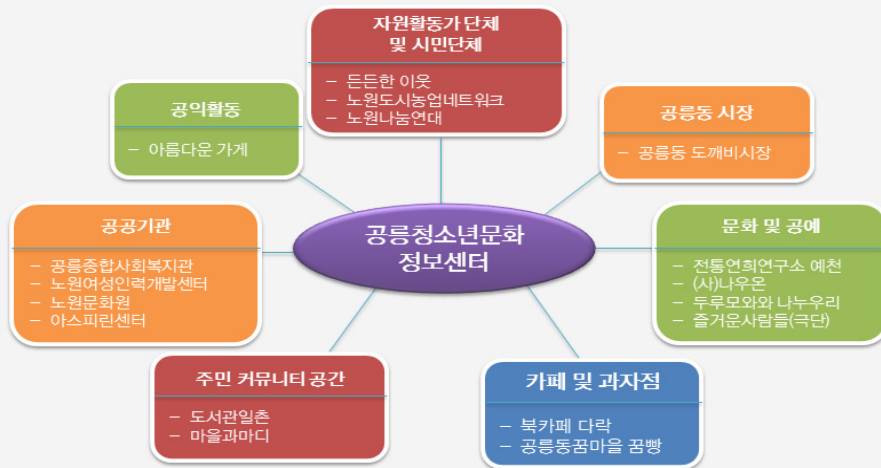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논리모델 개발 절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유형 및 지역별 논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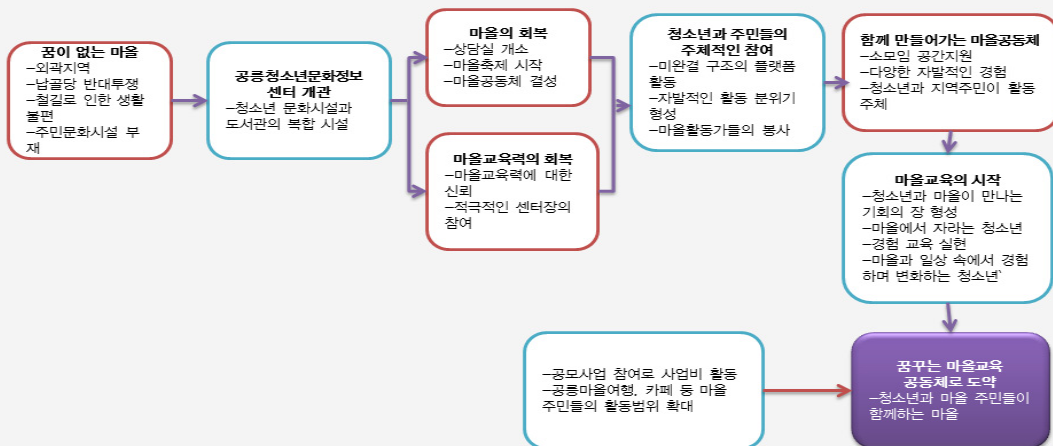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네트워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유형 및 지역별 논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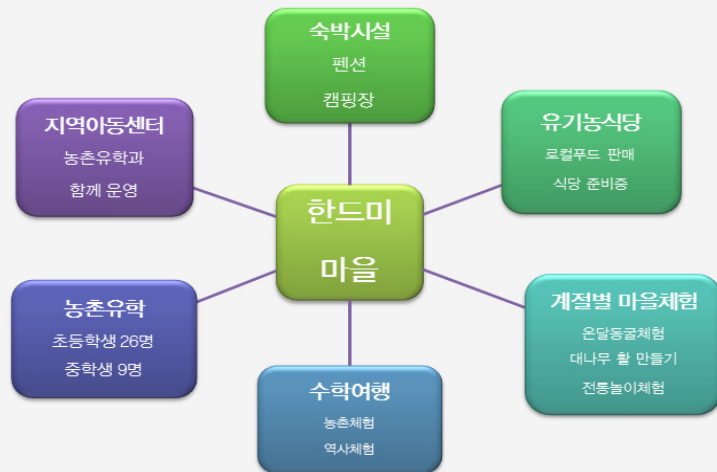
➤ 공릉 꿈마을공동체 운영 논리 모델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유형 및 지역별 논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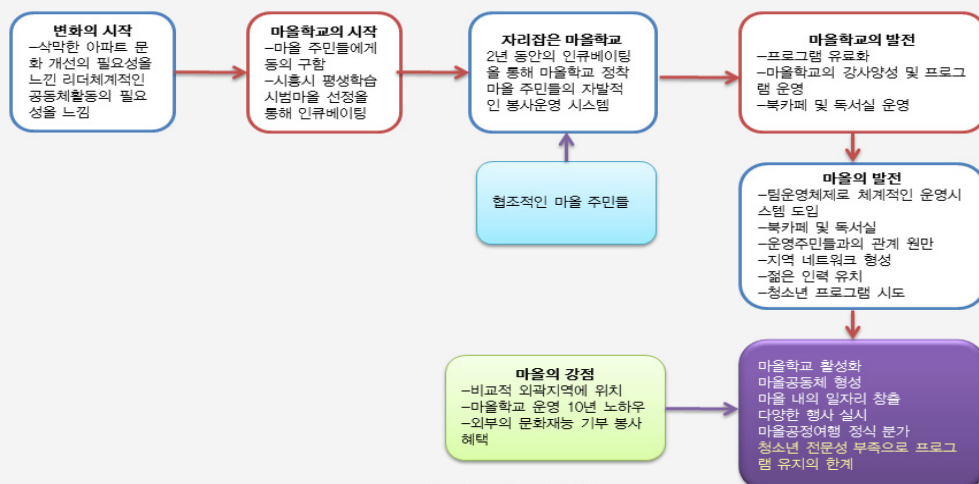
▶ 한드미 마을공동체 운영 협력 네트워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유형 및 지역별 논리모델

▶ 한드미마을공동체 운영 논리 모델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미지출처:

http://www.freepik.com/free-vector/international-networking_785771.htm

무료이미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논리모델 개발

김 세 광 (고신대학교 교수)

지난 2016년 초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처음 던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며 회장인 클라우스슈밥은 제4차 산업혁명이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축복과 번영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긍정적 본성, 전인적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며 혁신적 미래를 위해 요구되는 네 가지 역량을 다루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적 작업이 생산적이며(정신), 합리성과 정서적 차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며(정서), 의미와 목적에 대한 부단한 탐구(영혼), 신체, 정신, 감정, 사회의 조화(몸) 등은 혁신적인 미래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인간 능력 요소이다. 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로서 칸막이 식(compartmentalized)사고방식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협력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의 담론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합당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chwab, 2016; 251-252, 259).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 한다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정신, 마음, 영혼, 몸이 통합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 내에 행복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한 공동체 구성이 요구된다. 스마트한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십 세기 간 대응 해왔던 인류의 지혜로는 매우 생소한 환경이 될 것이다(김형규, 2017, 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논리모델 개발”을 위해 선행된 ‘공동체(communitiy)’에 대한 개념 정리는 본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어다. 공동체가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유대감 등으로 정리될 수 있고 지역 연대감만이 아닌 **공동의 목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점이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위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구성되는 공동체적 경향성도 다루었다는 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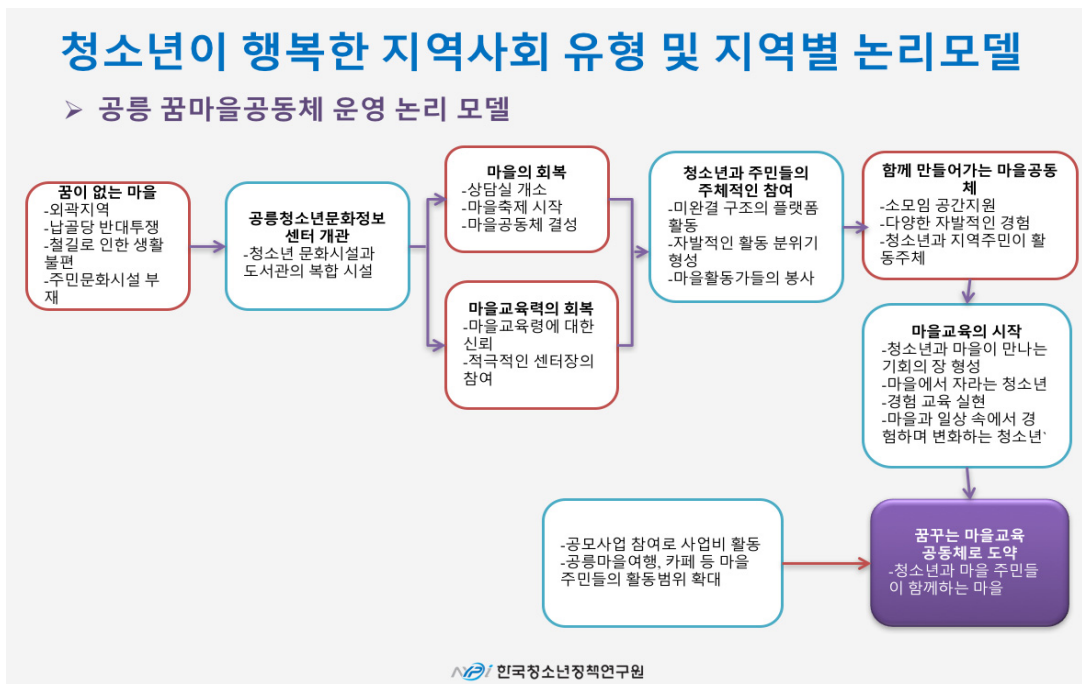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에 관한 논리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6년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방향을 구성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하였고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한 점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논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및 자료조사 >> 현장면접조사 실시 >> 방문기관 및 지역별 SWOT 분석 실시 >> 지역별 유형화 및 특성화 요인 추출 >> 논리모델 개발이라는 논리모델 개발을 위한 과정적 논리성을 갖추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1)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네트워크와 2)한드미 마을공동체 운영 협력 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과 유형화를 시킨 것이다.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한 현장 밀착형 논리모델은 실제와 이론의 간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나 상호작용을 논리모델의 영역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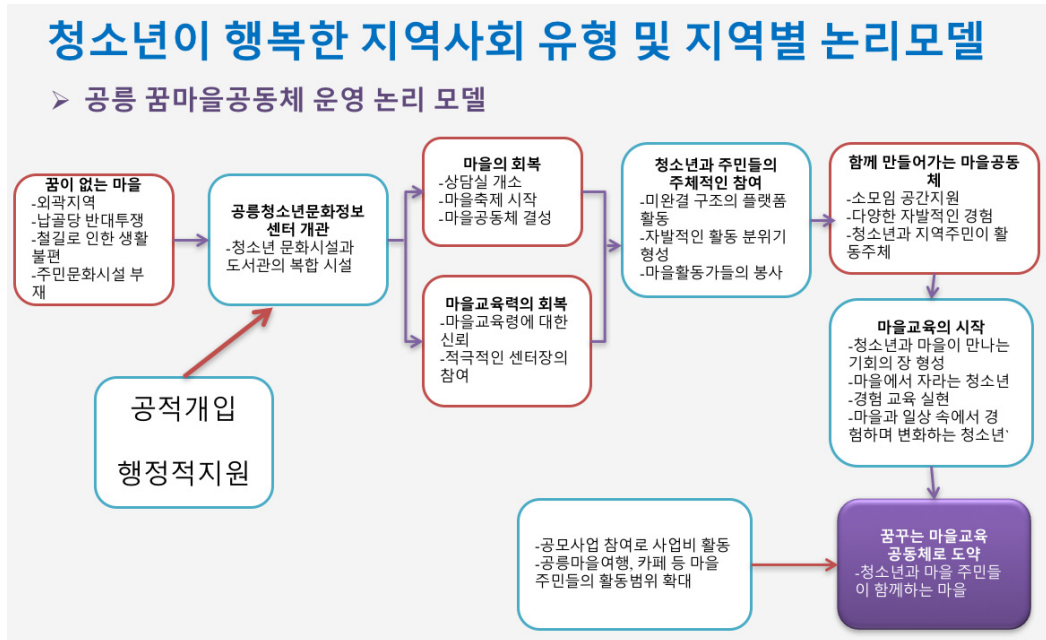
본 연구의 첫 번째 사례로 구성된 논리모델은 다음<그림1>과 같다.



<그림1> 공릉 꿈마을공동체 운영논리모델

위 논리모델을 살펴보면 마을의 내부적 활동과 자생력에 대한 구조는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의 힘으로만 이 같은 꿈마을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개관 되고 유지 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공적영향

력에 대한 **input**이 표기 되면 민과 관의 협력 체계가 명확해 질 것이라 사료 된다.



<그림 1-1> 공릉 꿈마을공동체 운영논리모델-1 (민 & 관 협력체계 명시)

논리모델의 구성요소로서 투입의 요소로 공적개입 혹은 관의 행정적 지원 등을 input의 차원에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리모델의 유용성 중 하나가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영중,2004,131). 1)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중심 마을공동체 운영 네트워크와 2)한드미 마을공동체 운영 협력 네트워크의 사례를 논리 모델로 구성하였는데 1)의 논리 모델 구성과 2)의 논리 모델 구성에 있어서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과정에 보다 구체적인 연결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의 경우에 있어서 투입에서 결과까지의 연결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의 협조를 연결성의 고리로 구성하고 산출의 과정에서 ‘마을의 강점’이 거론 되는 것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과정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 연구가 아니라 현장의 소리와 현상에 귀를 기울인 살아있는 연구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궁극적인 인간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고 협력적인 연구의 방법으로 채택된 현장조사와 논리모델은 현

장의 생생함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구축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 소외 된 것들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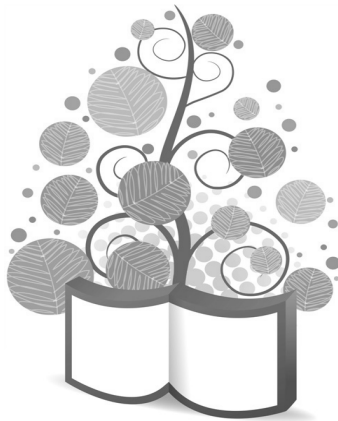
<참고자료>

- 김형균(2017). [4차 산업혁명과 공동체 관계 변화] 다양한 사회관계의 변화 대응 위해 새로운 공동체 신뢰 구조 정착 필요. 부산발전포럼, (164), 16-25.
- 김영중(2004). 논리모델(Logic Model)과 성과측정(Outcome Measurement).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 술대회 자료집, 123-140.
- Schw ab, K.(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lony/Geneva: World Economic Forum. 송경진(역)(2016),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 현재.

발 표 2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방안

- ▶ 발표: 김기쁨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장)
- ▶ 토론: 최인정 (전라북도의회 의원)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방안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중심으로-

김 기 뽐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장)

1. 들어가는 말

저는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제 2기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회장이자 제 3기 ASPECT 청소년 기자단의 문화 팀 소속 김기뽐입니다. 2016년인 작년, 저는 달그락이라는 공간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ASPECT라는 사회 참여 자치기구인 청소년 기자단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제 1기 연합회의 고등학교 부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았었습니다. 그 때 당시, 달그락의 안과 밖에서 기자단 활동, 청소년 참여포럼, 18세 선거권 공동 행동 네트워크 등의 여러 가지 사회 참여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청소년 참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2기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달그락 내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가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사회를 직, 간접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이란?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이란 쉽게 말해 청소년들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마을을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듦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청소년들의 행복’과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듦으로써’입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인 ‘청소년들의 행복’은 ‘행복’의 의미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호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호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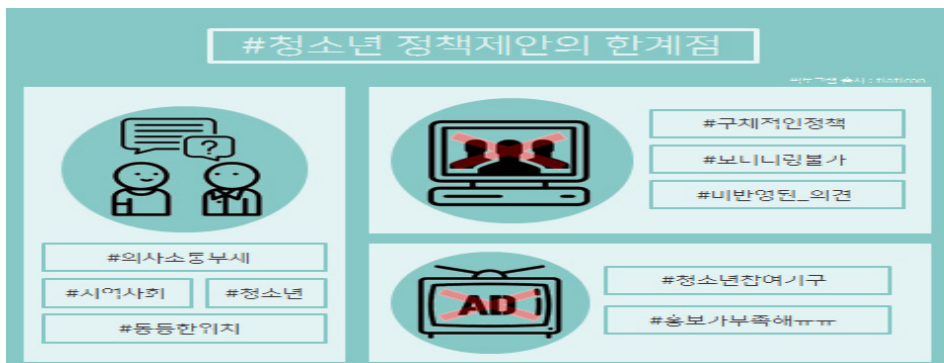
또 두 번째 핵심 단어인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만듦으로써’는 청소년 참여와 의

미가 비슷합니다.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으로는 이곳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달그락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활동,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 연대 청소년 참정권 보장 캠페인 등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참여 활동들을 통해 청소년 참여가 활성화될 때,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청소년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민간조직인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자단, 청소년CEO, 작가단 등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을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2016년 2차례 진행되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자,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와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등의 청소년들의 발표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참여포럼을 통해 청소년이 토론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정책반영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출해낸 내용을 2016년에는 56개, 2017년 초에는 70여개를 시에 제안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제안한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수용하기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중 반영된 것은 8개뿐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모니터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고를 하고 있음에도 참여할 기회가 적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와 장치 역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 주도한 청소년 활동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으며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선호와 필요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 자치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청소년은 지역사회에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지자체에서 수용하는 수준까지 청소년 참여 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 포럼 등의 연합활동을 만들어가는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공유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민간단체-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지역에서는 ‘2017 청소년 상상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1) 2016 청소년 정책형성과 제안과정 개요¹⁾

① 추진과정

일시	개요	내용	비고
2016년 3월~ 5월	청소년 사회참여, 신용경제 등 다수 교육 진행	□ 내용: - 청소년 기자학교 - 사회참여 활동의 개념과 사례 교육 - 청소년 경제, 마케팅 교육 - 청소년 창업 교육 - 정치 및 입법 활동 교육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교육 5회 250명 참여
2016년 5월 ~9월	청소년 활동 전개	• 청소년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활동 □ 내용 : - 청소년 주도의 프리마켓 운영 - 물품 판매(드라이플라워, 캔들, 페이퍼모델, 쿠키, 음료, 음식, 악세사리, 모종 심기 체험 등)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프리마켓 운영 6회 300명참여
		• 청소년기자단 활동 □ 내용: - 언론보도 (새전북신문) 주1회 청소년기자단 지면	기사기고 80회 팀 회의: 24회 576명참여

1) 2016청소년 정책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시청에 제안한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제안서 일부

		‘달그락달그락’ (매주 기사4개 연재) - 지역사회 현장 모니터링 - 지역민 인터뷰와 설문조사 - 청소년 기자멘토링 (완주 어린이 행복도시 인증, 전주시장인터뷰 동행취재) - 문화팀 : 청소년단체, 청소년 문화활동 확대 - 교육팀 : 청소년동아리, 정치교육 등 - 정치사회팀 : 청소년참여활동의 확대 방안, 세월호 특별기사 등청소년기자단을 통한 지역 언론 공유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새전북신문사	기자 동행취재 2회
		• 지역사회 역사체험활동 □ 청소년 강사가 진행하는 지역역사 탐방 □ 역사 토론회 - 주제 : 군산의 일제 강점기 잔재 관광화방식 옳은가 - 세부주제 : 군산의 근대 역사 벨트화 사업 옳은가, 철길마을 관광방식 옳은 것인가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H.O.H 역사자치기구	역사체험활동 5회 40명
		• ‘군산시 청소년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 구성TF 활동 □ 내용: - 조례명: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 조례 구성을 위한 TFT 회의 · 조례안 군산시의회 임시회의 의안 가결(청소년참관) - 조례내용 :자치권 확대 기본계획수립, 모바일 앱 개발, 공청회 개최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강성옥시의원	회의 5회 8명 참여 보도자료 7건 기획기사 2건 지역 매거진 기고 1회
2016년 7월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포럼	□ 내용: 사회 : 이지수 교수(군산대학교)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 및 정책화 방안’ 연구개요 : 발표자 오해섭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교육 훈련 방안 - 발표자 정건희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 유럽의 청소년의회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발표자 박선영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 국내외 마을 만들기 운영 사례 분석 및 적용방안 - 발표자: 김세광 교수 (고신대학교)	80명 참여 관련 전문가 6명 참여

		토론: - 토론 1 : 오성우 (시범사업 운영 담당자) - 토론 2 : 강건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대표청소년) - 토론 3 : 강성옥 (군산시의회 의원/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 - 토론 4 : 차정희 (군산시어린이행복과장) □ 주최 ·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자치연구소(사.들꽃청소년세상), 이천시청소년문화센터	
2016년 8월~9월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활동	□ 내용: - 추진위원회 결성 - 청소년참여포럼 주제 및 토론내용 선정 - 분임 모의토론 진행 - 진행, 홍보, 기획 TFT 팀구성 포럼 준비 - 책자 내용 구성 및 제작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포럼 추진회의 7차 추진위원회 27명 포럼책자제 작 1권
2016년 9월	청소년 참여포럼 (청소년 지역 여행기)	□ 내용: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의제 도출, 청소년주제발표, 분임토론, 등 - 기초발표 : 객지은 청소년참여포럼 추진위원장 - 분임토론(경제,안전,환경,활동,복지,교육,참여) · 전문가 지원(청소년위원회) - 종합발표 및 토론 · 토론 내용 발표 - 종합제언 · 노창식 계장(군산시어린이행복과) · 이강휴 위원장(청소년위원회) · 이복, 조경수 의원(군산시의회) ·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0명 참여 보도자료 1회 전문가 7명 참여 지자체 관계자 및 시의원 3명 참여
2017년 2월	〈달달포럼〉 청소년정책제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내용: 1부 사회 : 이백만 위원 (청소년위원회) - 군산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과 제안과정(김정윤 청소년,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장) - 군산청소년학생연합 활동과 사회참여(전동균 청소년, 군산청소년학생연합 회장) - 청소년참여포럼을 통한 정책제안 (객지은,강다혜 청소년 2016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 청소년자치권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사례 (박나림 청소년, 청소년자치권확대 조례 TFT 대표) 2부 좌장: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	포럼 1회 60명 참여 전문가 2명 참여 지자체 관계자 및 시의원 3명 참여

		- 베푸는 정책에서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으로 (양은희 교사 회현중학교, 군청학연 자문위원) -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도시 (추성원 청소년 2016 군산시 청소년 의회 부의장) - 공공영역에서의 청소년 정책 활용 제안(노창식 계장 군산시청 어린이 행복과 어린이 정책계) - 지방의회 영역에서의 청소년 정책활용 제안 (강성욱 시의원 군산시의회) - 3부: 청소년정책제안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 토론 □ 주최 · 주관: 청소년자치연구소, 청소년참여포럼추진위원회, 군산청소년학생연합	
--	--	---	--

2) 2017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내용

(1) 목표

- 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안한 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지역사회 마을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제안점을 도출

(2) 세부사업계획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청 소 년 상 상 행 복 마 음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 교육프로그램(안) · 청소년 상상마을 프로젝트 이해 ·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지역 변화 사례 · 지역사회 모니터링의 이해 및 방법 · 프로젝트 팀 워크숍 - 청소년참여포럼을 통한 안건을 바탕으로 집중 주제 선정 및 분과 나눔 -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지도 그리기 - 팀별 연간 활동기획 및 발표 ○ 토론 및 발표	5월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만들기	○ 분과별 활동(인권참여, 교육진로, 복지안전, 문화, 경제) ○ 지역사회 모니터링 활동	6~9월	200여 명의

사업 영역	세부사업	활동 (수행방법)	시행 시기	비고
만 들 기 프 로 젝 트	추진활동	- 설문조사, 인터뷰 등 - 관련 의사결정자 인터뷰 및 기획보도(새전북신문 : 주1회 청소년기자단 지면 '달그락달그락' - SNS 방송국 및 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 공유 - o 정기 회의 · 프로젝트 팀별 회의 및 전체 회의 진행 -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활동		청소년 분과별 활동
	상상 캠프	- o 프로그램(안) - 강의 : 청소년 참여활동과 리더십 - 분과별 활동내용 공유 및 토론 - 상상지도 그리기	8월	
	청소년참여포럼	- o 지역조사 및 취재 내용 발표와 분석 토론 - o 청소년 의회, 기자단, 학생회 등 연합하여 준비 - o 주제별 대토론회 - o 분임별 발표 - o 토론 및 우수활동자 표창	9월	군산시 연계
	보고서 작성 및 제안	- o 청소년 지역정책 참여 보고서 작성 및 배포 - o 청소년 참여예산 편성 - o 민관 간담회	9월	청소년 의회 연계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o 평가회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 운영 가능성 논의 및 활성화 방법 모색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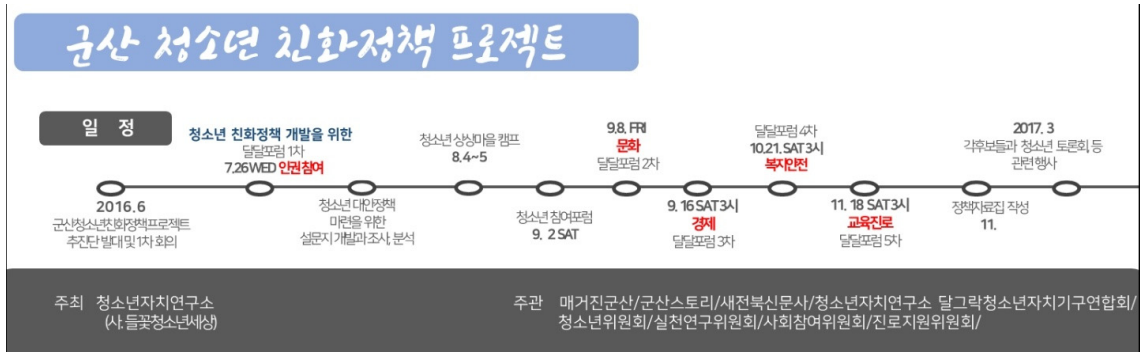
(3)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 진행

-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본 포럼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토론과 정책 제안,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 및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주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교육과 진로, 복지와 안전, 문화 등 영역별로 나누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9월 2일에 진행 되는 청소년 참여 포럼에서는 앞서 말씀 드렸던 달달 포럼의 모든 분과들이 안전과 활동 내용들을 발표하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달그락 내의 청소년들과 군산시 내의 청소년들이 경제, 문화, 교육 · 진로, 복지 · 안전, 인권 · 참여 5개의 분과로 나누어 함께 토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참여

포럼의 의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 포럼 추진 위원단을 구성하여 포럼의 구성부터 진행까지 스스로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 2017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프로젝트 개요

- 분과별 청소년 정책개발 안건(관련 조사 및 설문조사 등 활동 진행 중)

① 청소년 경제 활동과 경제 교육 (경제 분과)

경제 분과에서는 청소년 경제 활동과 청소년 경제 교육의 중요성을 달달 포럼의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경제 활동에서는 청소년 프리마켓 장소 부족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문제점으로 보고, 청소년 프리마켓 장소 마련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경제 교육에서는 경제 관련 교과 수업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보고, 경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실업계뿐만 아니라 인문계에서도 실제 경제생활에서 유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 경제 교육의 실시 및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② 청소년이 주최하는 문화 프로그램 (문화 분과)

문화 분과에서는 청소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달달 포럼의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에서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부족을 문제점으로 보고, 청소년 문화제, 타 학교와의 교류의 날과 같은 청소년들이 주최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해결 방법으로 제안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③ 청소년을 위한 교육 · 진로 프로그램 (교육 · 진로 분과)

교육 · 진로 분과에서는 청소년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진로교육에서는 특정 직업 위주의 직업 체험, 직업 설문 조사 미 시행, 학생들의 무

관심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에서 이에 대한 지원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④ 청소년에게 필요한 복지 · 안전 프로그램 (복지 · 안전 분과)

복지 · 안전 분과에서는 청소년 통합 지원 센터 설립, 청소년 지원 예산 확대 등 청소년 복지 · 안전 프로그램을 청소년 복지 · 안전 프로그램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 · 안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군산 시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공간, 시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 등 군산 시민 복지 · 안전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 하고자 합니다.

⑤ 청소년 인권 보장과 참여 활성화 (인권 · 참여 분과)

인권 · 참여 분과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와 참여의 비활성화를 문제점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권 보장과 참여의 활성화를 해결방안으로 보았습니다. 인권 보장에서는 청소년 인권 거리 조성, 청소년 개성 표현의 자유 법안 개정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고, 참여 활성화에서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 조례 개정, 청소년 참여 예산제 실시,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 대회 개최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란 ‘주민 참여 예산제’와 의미가 일맥상통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시의 예산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청소년 자문 위원회를 구축하여 시의회의 청소년 자문 위원회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4.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운영 방안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청소년 참여 활동의 부족과 그에 대한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군산시와 청소년자치연구소 등과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함께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나 학교 별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개발 프로젝트인 청소년 참여 포럼을 시에서 운영하여 청소년들도 정책 제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3가지 측면은 사람, 공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운영을 위한 사람들은 청소년과 청소년 활동가, 코디네이터, 시 행정 담당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 활동가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역사회차원에서 교육, 활동공간 연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과 시민 사이의 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플랫폼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코디네이터는 이 사례에서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세부적인 역할로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중간 지원 조직 간의 연계 협력, 종합적인 자료의 축적 및 제공, 교육 사업과 홍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시 행정 담당은 청소년 행복마을을 위한 통합 부서를 개설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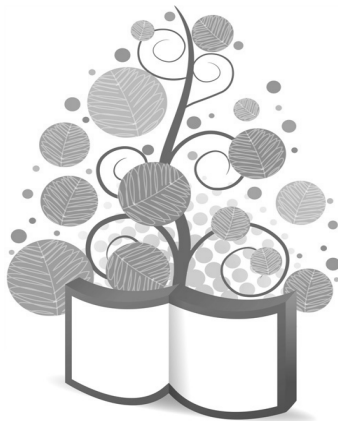
두 번째,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운영을 위한 공간은 앞에서 말한 것들을 통해 개인을 넘어 단위 조직으로, 조직을 넘어 네트워크 형태의 자발적인 ‘청소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플랫폼’이라는 공간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합니다.

덧붙여 청소년에겐 형태가 없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형태가 있는 플랫폼 또한 필요합니다. 형태가 없는 플랫폼은 앞서 말한 청소년 개인, 단위 조직과 그 안의 문화 등을 일컫습니다. 형태가 있는 플랫폼은 형태가 없는 플랫폼의 가치를 담은 장소, 예를 들어 이곳 청소년자치연구소를 일컫습니다. 형태가 있는 플랫폼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면 청소년 참여tol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공교육의 실효와, 청소년이 안전한 도시등 주요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명확한 목적을 가진 일련의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몰되는 대상이 아닌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앞장서고, 이를 지지해 나간다면 달그락 청소년자치기구 연합회가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라는 목적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청소년들은 움직일 것이고 프로그램이 형성될 것입니다.

군산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지원방안

- ▶ 발표: 김소현 (달그락청소년기자단 ASPECT 대표)
- ▶ 토론: 김민재 (목포시청소년수련원 팀장)



군산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지원방안

-달그락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교내 동아리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 소 현 (달그락청소년기자단 ASPECT 대표)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군산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된 제 3기 ASPECT 청소년 기자단 전체대표 김소현입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조사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는 기자단 전체대표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달그락에 오는 주말이 즐겁습니다. 달그락이라는 곳을 만나기 전 까지만 해도 저는 매주 돌아오는 주말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쌓인 피로를 풀기위해 편하게 쉬며 나른 의미 있게 보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 왔었던 길을 되돌아보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흘러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만 가득 했습니다.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져 올해 초에 친구에게 주말마다 할 만한 활동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소개해준 활동이 바로 청소년 기자단활동 입니다.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올해 초에 시작해서 지금은 기자단 전체대표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자단 전체대표라는 직책이 생기면서 제가 속한 여러 회의들이 생겨났으며 제가 해야 할 일과 그에 따른 책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갑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생겨나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오래 활동한 청소년들을 두고 제게 기회를 준 많은 청소년들과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느껴 열심히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역할이 생기면서 달그락에 드나드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동안 제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으며 이런 좋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제가 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활동소개와 의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사전적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들이 움직여 행동하는 것을 활발하게 하다’ 라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먼저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제가 소속된 곳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ASPECT청소년기자단의 ASPECT는 ‘측면’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의 측면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보도하겠다.’는 정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이슈거리 등을 찾아 취재활동을 해 기사를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칼럼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주장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뒤바뀐 선거 날짜로 인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선거권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18세 선거권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기사를 써야할지 몰라서 다른 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차근차근 시작하려 했으나 학교 동아리 기장으로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먼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지을까?’ 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야 하지?’ 등 많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들에 답을 하며 기사를 써 나갈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인터넷에 떴을 때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전 까지만 해도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기사가 뜨고 나니까 그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쓴 기사를 보고는 자기일 같이 엄청 뿌듯해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제 기사를 발견하셨는데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교무실 선생님께 돌리고 자랑을 하셨으며 복도에 붙여 제 이름이 전교에 소문나게 하셨습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도 수업을 들어갈 때마다 복도에 붙어있는 기사 봤느냐고 우리 동아리 기장이라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무실청소를 위해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한 선생님이 “아이고 기자님 오셨습니까?” 그러셔서 교무실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기립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기립박수를 쳐준 일은 올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날 전 3년간 받을 관심을 다 받은 듯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모르는 친구들이 알아봤고 지나가는 선생님 마다 기사를 언급 해 주시며 잘 썼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제일 많이 변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봤다면 기사를 보고 난 후에는 ‘저 친구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원 청소년은 군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8세선거권 지지 및 투표 독려 캠페인 활동내용을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조용준청소년은 동아리가 진로나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유익한 활동을 이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닌 단순 진학용 수단으로 변질된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입시전형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 참여포럼을 추진 등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들 생각] 정치는 청소년들이 범해서는 안 될 세계인가

2017년 04월 12일 (수)

김소현 청소년 기자 ✉ APSUN@sjbnews.com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5·9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탄핵 전 예정된 선거일은 올 12월 20일이였다. 이로 인해 올해 20세가 된 98년생들이 기대했을 첫 선거의 환상은 무너졌다.

공직 선거법 제15조 제1항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0세 인구는 전국적으로 67만9,307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 선거권을 가진 20세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275>

투표소를 앞에 두었지만... 권리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의지를 보여주다

2017년 05월 24일 (수)

고지원, 이만영, 김정현, 조용준 청소년기자 ✉ APSUN@sjbnews.com

5월 9일 군산에서는 청소년자치연구소,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군산스토리,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등이 주최하고 청소년과 군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8세 선거권 지지 및 투표 독려 캠페인이 있었다. 군산의 투표소 앞에서 시민들과 청소년들은 “18세 선거권을 요구합니다” “18세는 안되는 정치참여, 투표하셨나요”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었다.



출처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967>

“대학에 갈 수만 있다면…페이퍼 동아리라도”

[구명난 학생부 종합전형] ①입시 수단으로 전락한 동아리 활동

2017년 03월 22일 (수)

조용준 청소년 기자 ☞ APSUN@sjbnews.com

동아리는 진로나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이 모여 유익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하지만 대학 진학용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동아리의 주된 목적은 봉사활동인데 그런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름뿐인 동아리로 남아있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용으로 만든 무분별한 동아리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사라지기도 한다.” 현장에서 만난 한 고등학생의 지적이다. 최근 군산지역 한 고등학교는 학급 학생 전체를 일괄적으로 특정 동아리에 부원으로 넣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자율동아리는 더욱 심한 경우도 있었다. 동아리를 개설하고서도 활동은 하지 않은 채 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내용만 꾸며서 넣는 것이다.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입시공부로 바쁘지만 그래도 기재할 내용은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출처 :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303>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추진활동에는 인권·참여, 복지·안전, 문화, 교육, 경제로 나뉜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여러 분과들 중 저는 복지·안전 분과에 속해 있으며 부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자로서 기사를 쓰다 보니 요즘 사회가 복지와 안전 쪽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 해보고자 복지·안전 분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지·안전 분과에서는 복지와 안전에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군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책이 어떻게 하면 실현이 가능할지 구체화를 시켜 시행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과정에서는 청소년복지와 안전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거나 시에서 안전 쪽에 얼마나 지원 해주고 있는지 예산서를 찾아보는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회의는 청소년자치연구소 내의 약 15개의 자치기구의 임원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 자치기구의 임원들이 모여 직접 행사를 기획 해 보기도 하고 더 나은 활동을 하기위해 회칙을 개정하는 등 달그락 청소년들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임원회

의 내에서는 임원들끼리 학습기획부, 문화기획부, 홍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 달그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문화기획부에서는 얼마 뒤에 있을 상상캠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청소년들이 즐거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학습기획부에서는 자치기구 연합활동 기획 및 아이디어 취합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달그락의 많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토론회 등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느라 바쁩니다. 홍보부에서는 페이스북에 개설된 ‘달그락달그락’이라는 그룹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치기구 활동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기위한 ‘릴레이 셀카공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기구가 많다보니 어떻게 하면 많은 청소년들이 잘 어울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홍보부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주간 홍보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친목’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친한 청소년들끼리만 친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달그락 내에 어떤 자치기구와 청소년들이 있는지 소개해주고 갑작스런 모임을 제안 해 평소 친하지 않던 청소년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어떻게 하면 이런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발표문을 쓰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써야 하는데 저는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달그락 선생님들과 대화도 하며, 깊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짧은 시간동안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교육의 문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받는 교육은 너무 형식적입니다. 향후 미래를 바꿔나갈 인재들을 정해진 틀에 우겨넣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주어진 대학 입시과정에 자신을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기자단활동소개에서 말씀드린 조용준 청소년의 기사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던 간에 ‘생기부’라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생기부란 생활기록부의 약자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동아리 활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 토론문 쓰면 생기부에 쓸 수 있어?” 저는 제가 좋아서 보람을 느끼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위해 시작한 활동이 아닙니

다. 내가 보람있어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데 학교에 자율동아리를 개설하게 된다면 다른 학생들도 이 활동을 즐길 수 있을까 싶어 자율동아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내 동아리 개설이 안됐을지라도 활동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항상 생기부 타령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달그락에서 하는 여름방학 활동소개를 학교 선생님께 부탁드렸는데 “다른 애들은 이거 해도 생기부에 못 넣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은 틀에 박힌 입시교육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복지·안전 분과 회의를 하며 군산시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보니 형식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이·통장으로 나와 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지역 내 국가재난대피시설 알기,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초기 대처 방법’, ‘어린이집, 유치원생, 이·통장 등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견학 및 현장체험 학습’ 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없을 뿐더러 견학 및 현장체험 학습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사업예산은 비예산 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중학생 이었던 청소년이 올해에는 고등학생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매 해마다 교육의 대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교육의 대상은 바뀌는데 교육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른들은 다시 한 번 생각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의 대상이 바뀔 때 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에 맞게 교육내용을 조금씩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주변에는 형식적인 교육들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보면 제4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①에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고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많은 청소년들의 의견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을 위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제6조 (청소년의 참여)를 보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앱이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만들고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실제로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결과도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동아리의 지원이 물질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학교 내에서 동아리를 개설했을 때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 지원으로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으로는 청소년들을 활동의 주체로서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내 동아리의 대부분은 정서적 지원 보다는 물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의 주체는 청소년인데 청소년들을 믿기는커녕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는 학교의 문제점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등을 통해 안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활동기관의 위상이 낮습니다. 현재 청소년 활동기관에 대한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시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학교의 교육은 중요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 활동기관의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매일 국어와 수학을 가르쳐 봐야 향후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목을 자신의 전공을 삼고 가지 않는 이상 지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적인 교육에 그칩니다. 하지만 학교 밖의 청소년 활동기관에서 받는 교육은 나중에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활동기관에서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는 달리 사회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보다 달그락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현재의 저나 미래의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자치연구소는 학교와 다르게 시의 지원이 없이 운영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겠지만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우리의 뜻과 맞는 후원자 분들을 찾아 그분들에게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문제의 해결방안과 비슷하게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합니다. 거리에서 캠페인을 한다던가, 1년에 몇 번씩 부모교육, 교사교육을 받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소년 활동기관의 위상을 높이면 청소년

년과 지역사회의 시선도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²⁾

4. 발표문을 마무리 하며

이 발표문을 쓰면서 청소년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형식적인 교육의 문제점’,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동아리의 한정적인 지원범위의 확대’, ‘청소년 활동기관의 위상이 낮은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나 청소년 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기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청소년 모니터링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동아리의 한정적인 지원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 활동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식개선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발표문을 마무리하기 전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 말고 도전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나중에 분명 후회를 할 날이 올 것 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향후에 청소년들이 어떤 일을 하던 그 경험들이 좋은 밑거름으로 청소년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문을 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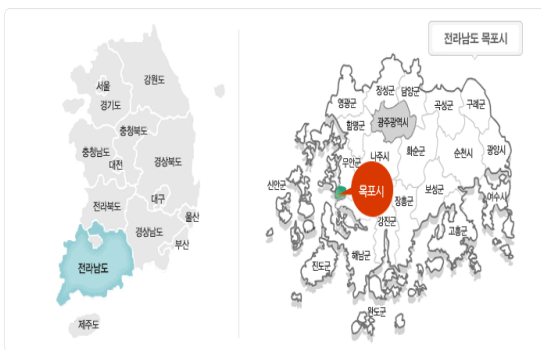
2) 예컨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것처럼, 청소년 활동 기관에서도 의무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로 규정한다면, 청소년 활동 기관의 위상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목포지역 청소년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운영방안

김 민 재 (목포시청소년수련원 팀장)

1. 기관소개 및 사업의 필요성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목포시에서 설립하여 1996년 3월 26일 최초 개관 하였고, 2002년 9월 26일 목포YMCA에서 수탁운영중인 기관이다. 도심에서의 접근성의 문제로 생활권 ‘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연권 시설로 2015년 5월 1일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수련활동, 캠프, 체험활동 등 다양한 심신수련활동의 기능을 수행이며,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이 되었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목포 도심으로부터 불편한 교통과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접근성 제한에 따른 문제로 인해 청소년 기관으로의 기능이 제한이 되었으며, 이러한 제한점들은 인근 양을산산림욕장³⁾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기관에 대한 존재감이 생겨났으며 현재 차츰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심신수련활동의 청소년수련원의 기능과 주민과의 소통 및 청소년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능인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에 대한 공존을 위해 인근에 있는 상동지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지역 소통 및 환원 활동이 진행 중이다.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목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현재 목포시 인구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8150세대, 19432명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청소년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3) 목포시는 산림 속에서 치유와 명상을 통해 삶의 의욕과 활력을 느끼는 힐링 문화에 맞춰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양을산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였다. 2013년 조성된 이곳은 치유·지혜·생각의 숲 등 테마를 주제로 이루어진 등산로(2.2km)와 계곡, 야외무대, 계곡조성 등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주민 친수공간으로 정비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관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동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상동지역은 다수의 공동주택과 공단, 농촌이 혼재하는 복합지역으로 목포시의 관통도로인 백년로의 개통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이 지역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외계층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복지수요가 높으며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목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1세대, 3세대가 어울려 사는 모습의 가정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청소년 및 기타 복지기관인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주민들의 행복한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런 유관기관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상동지역을 마을공동체에 대한 실현과 세대 갈등에 대한 극복을 통해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소통 부재로 살아가는 지금 지역 기반 구축 및 봉사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눔 활동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중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시범운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2. 시범사업 방향과 내용

목포지역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 중 첫 번째로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행복자치위원을 조직하여, 지역사회에 청소년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의견 제안 및 반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 정책으로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한다.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기반구축단계를 진행하며, 2018년 확대단계를 통해 사례전파 및 지역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2019년 도약단계를 통해 청소년행복자치에 관한 목포시 조례 개정 및 전국단위 확대 운영을 위해 준비 중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조성 시범사업 선정

입력시간 : 2017. 05. 09. 00:00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사업비 2천만원 받아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행복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청소년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행복의견제안소',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행복질검다리' 등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축제'를 오는 9월 양을산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참여해 상동 지역에 희망의 꽃을 피우고 민·관이 협력해 지역의 관심사를 소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만성기자

목포=박만성기자 zmd@chol.com 목포=박만성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가링크 <http://www.horam.co.kr/read.php3?aid=1494255600524098064>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들의 행복한 지역참여 활동을 지향하고 정책제안을 통한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오프라인·온라인 소통의견함을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접수하고 수렴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의견은 지역 정책 및 현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같은 기구인 청소년교육문화위원회, 청소년복지위원회, 청소년도시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동반 관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들과 마을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마을축제를 진행하고자 한다. 어르신100명과



가이드 <http://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16>
 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한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 행복복지검다리를 지정하여, 청소년 증을 통해 서점, 마트, 미용실, 커피숍, 사우나 등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상점들과 협의하고 제휴하여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을 위해 청소년 행복공간 ‘youth happy zone’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을 구상하는데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소년100명의 소통하모니, 행복프리마켓, 행복마을노래자랑, 행복먹거리마당, 우리 마을영화제 등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나눔의 장을 구현하여 우리 마을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마을의 멋과 낭만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네 번째로 찾아가는 1세대 3세대의 어울림을 통해 행복한 마을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른 신들과 소통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지고 성장하여, 지역의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근 마을 경로당을 방문 하여 네 일아트, 안마봉사, 공연봉사 등 다양한 활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행복징검다리

청소년이 행복한 이곳은 바로

'목포시 상동행정복지센터'

목포시청소년정책연구원 목포시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종 도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경천고시·온라인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부터 중료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성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

- 공적신분증이 필요하거나 학생증이 없으면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세요!
- *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 이용이 어려움
- 청소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신청서 제출
청소년을 발급신청한
발급일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청소년증 제작
발급일자 실시간 조회
www.kamsco.com

발급 수령
신청을 한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어가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법제화하여,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된다면, 청소년 행복권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목포시 예산은 653,505,046천원이며, 그 중 청소년보호육성예산⁴⁾은 1,417,049천원이다. 이는 전체예산의 약 0.2%에 해당되며, 청소년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은 1,031,059천원, 청소년수련시설은 151,750천원에 해당된다.

사업을 통해 청소년행복자치위원, 청소년행복의견함, 청소년행복마을축제, 청소년행복징검다리 등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사업의 진행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방의회의원⁵⁾과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지역 정책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이 시행되었다.

4) 2017년 목포시 청소년관련 예산(담당부서: 여성가족과)

5) 지방의회의원: 지방의원은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

20
2016/07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주민과 함께

전남도의원강성휘 2016.07.20 17:22

<http://blog.daum.net/myman/1211478>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위원장(기획사회위원회, 목포)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관련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조사 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추진 ▲도 공공 청소년시설 증사자에 대해 매년 인건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사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라남도의회 강성휘도의원>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활성화 토론회>

또한 사업의 방향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도약 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조례와 같이 정책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다른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전라남도 목포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사항 및 조례(안)⁶⁾〉

구분	주요내용	권고사항
조례 명칭	○ 자치단체별 어린이(아동)·청소년 친화 도시 조례의 명칭 현황. ■ ‘어린이 친화도시’(서울성북구, 2011/노원구 2012/동작구 2013 등) ■ ‘어린이 행복도시’(군산시, 2015)	조례의 수혜 대상을 명료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 혹은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와 같이 청소년을 포함시키기를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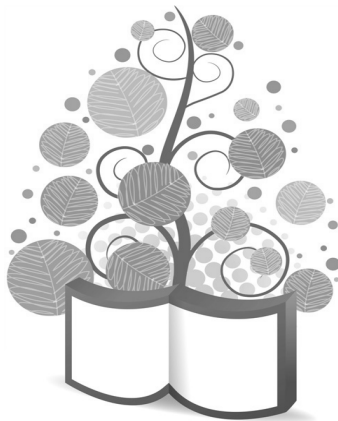
4. 마무리하며

사업 담당자인 본인이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센터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주민과의 소통,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왔으며,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청소년 활동에 대한 동반성장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였다. 2016년 현재 기관인 목포시청소년수련원으로의 이동으로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내의 지역사회 연계 및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에 대해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에서의 참여를 통해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시작단계인 지금 기관 고유의 업무와 자연권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에 한계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과 함께해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을 사례로 많은 배움을 통해 실천하는 목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역에서의 작은 움직임들이 청소년 정책 생산이 되어 커다란 움직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관을 중심으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포럼을 위해 고생해 주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군산청소년자치연구소에 감사함을 보내 드리며 글을 마친다.

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2015년 7월 23일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가 참여한 ‘지자체 청소년친화도시 조례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고유과제인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자료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의 연구진이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에 제시한 권고 내용과 조례(안)임.

목포시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 만들기 운영사례

- ▶ 발표: 마희승 (목포시청소년수련원 행복자치위원회 대학생분과 위원장)
- ▶ 토론: 오성우 (청소년자치연구소 사무국장)



목포시 청소년 활동 중심 마을 만들기 운영 사례

마 희 승 (목포시청소년수련원 행복자치위원 대학생분과 위원장)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MokPo

2017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Welcome to #우리마을 상동

목포시 대학생위원장 마희승

I ♥ MOKPO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목포시



국립목포대학교

MOKPO NATIONAL UNIVERSITY
1946

사회복지학과

생각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목포시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비밀밥'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 마희승 ♡

contents

- In Mokpo 청소년 ?
- 청소년 행복자치위원은요 ?
- Why 상동마을인가요 ?
- 우리들의 활동내용

in
Mokpo청소년?



In Mokpo 청소년?

벽화 동아리 '새벽'



환경 CamPain



지식 & 재능나눔



청소년 사랑나눔 콘서트



근대문화홍보



청소년 경연대회



2017
청소년 행복자치위원?



‘자치(自治)’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



청소년 행복자치위원?

행복+ 자치.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다스리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청소년들



행복자치위원을 소개합니다



키움위원
(초등위원)

빛길위원
(중, 고등위원)
세움위원
(대학생위원)



WHY
상동마을?



Why 상동마을?



목포시 인구의 8.1%



■ 목포시
■ 상동



원도심과 신도심의 연결고리



상동마을?

소외계층 다수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소외계층 다수
- ✓ 1, 3세대 함께 거주
- ✓ 다수의 임대아파트



청소년 표현 “목포의 할렘가”

목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Why 상동마을?

목포시 상동 청소년 행복감 지수 조사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1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9
가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2
보통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3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7
자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5
합 계	100(100%)

목포시 청소년 전체 행복감 지수 조사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5
대체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3
가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8
보통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4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5
자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2
합 계	100(100%)

출처: 목포시 행복청소년자치위원

STEP 4

중장기적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 청소년 행복공간 ‘Youth happy zone’
- 지방의원과의 토크콘서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STEP 3

청소년의 욕구부응 지원방안마련

- 청소년증 발급 및 홍보
- 청소년 행복장점다리 지정

STEP 2

청소년과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쉽 강화

-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 청소년100명, 어르신100명의 소통 harmony
-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축제 청.양.고.추

STEP 1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 청소년 행복의견함 (on/off)



우리들의 활동내용

STEP 1.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와 활동을 하다.

청소년 행복 의견함

세부사업명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
‘동네한바퀴’ 청소년 행복 의견함 (ON, OFF)	◦ 청소년들의 행복한 지역참여 활동을 지향하고 정책제안을 통한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 일시: 2017. 04 ~ 09



STEP 2.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다.



소통 Harmony



청.양.고.추



STEP 3. 청소년의 욕구를 부흥하
는 자원을 마련하다.



청소년의 욕구 부응사업

세부사업명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청소년증 발급 및 홍보	◦ 청소년증 발급과 지역사회 기관들의 제휴협약을 통해 시장경제의 도움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혜택 제공. ○ 일시: 2017. 04 ~ 2017. 09
청소년 행복 징검다리	◦ '청소년 행복 징검다리'상점을 지정하여 마트, 미용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청소년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일시: 2017. 08 ~ 201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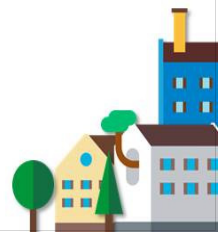
청소년증 발급 및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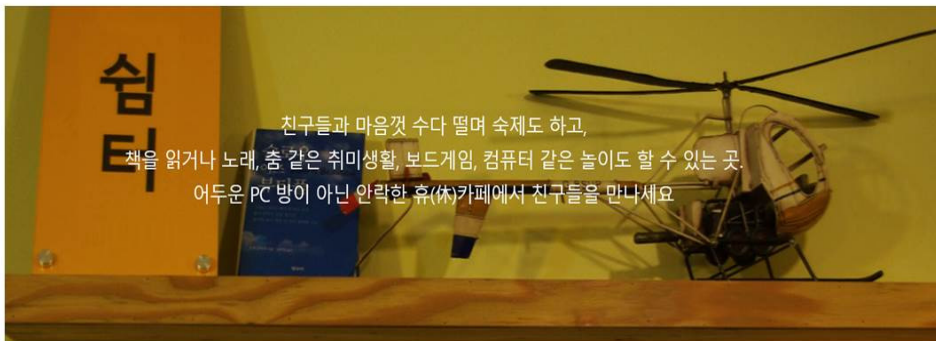




청소년 행복 징검 다리 지정

STEP 4.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이 행복
한 마을을 만든다.







후카페 여기있어요!

● 운영중 (29개소)

광주



상상발전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84(역삼로 5번출구 100m)
 ☎ 424-7902



참수리
 광주광역시 남구 용마공원로 5길 13 명우3차단센터 2층(우림시장 버스정류장 200m)
 ☎ 6229-1007

중장기적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세부사업명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청소년 행복공간 'Youth happy zone'	◦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행복공간지정을 통한 상시적인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마련으로 중장기적인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계획 구상 ◎ 일시: 2017. 04 ~ 2017. 09
지방의원과의 토크콘서트	◦ 단위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의원들과의 만남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지역정책으로 탄생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 ◎ 일시: 2017. 09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조례 제정 ◎ 일시: 추후계획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 John Lennon -

**#청소년 #행복마을 #참여
#감사합니다 #Thank #You**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마을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오 성 우 (군산청소년자치연구소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마희승 청소년의 발표 PPT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며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다” (John Lennon)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사실 나는 발제문을 받기 전부터 이 문장을 내 토론문의 첫 문장으로 하려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발제자와 토론자의 마음이 통하는 것을 보니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운영사례 및 모형 개발 포럼’이 참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마을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이전에 몇 번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201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군산지역)에 참여하며, 이 말이 계속 내 머리와 가슴을 맴돌고 있다.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이 행복 마을을 상상하고, 토론하며,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조사해가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청소년 활동과 운동의 한 모델을 발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보였다. 그리고 오늘 목포의 청소년이 상상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니, 정말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더욱 가지게 된다.

2.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의 활동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함의와 궁금한 점

목포의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활동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목포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 행복자치위원의 활동은 지역을 충분히 이해 및 분석하고, 그 이해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 간의 관

계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하여 예컨대,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마을 주민들과 프리마켓 등을 진행하며 마을 공동체의 나눔 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청소년자치연구소의 경우도 경제(프리마켓) 영역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전문가 또는 멘토와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으며, 프리마켓에서의 수익금 일부는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또한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추진활동에서는 다양한 청소년자치기구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기반한 지역 청소년 정책(의제)을 만들어내고, 이를 내년에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청소년은 마을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시민으로서 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을 미성숙하거나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지역의 시민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먼저 지역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 조직, 단체 등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바로 지역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 활동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계획(Plan)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목포 활동 사례에서는 네 단계에 따른 청소년 활동 계획 부분이 인상 깊었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별 활동계획의 4단계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인데,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려는지, 이에 대한 과정이 궁금했다.⁷⁾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도 청소년 상상하는 행복 마을 추진 활동 과정들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유기적으로 영역(분과)⁸⁾ 간 결합하기도 하되, 전체적으로는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추진 활동 과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행복마을 상상 아카데미(6월10일 진행) → 청소년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5가지 영역(분과)으로 구분 → 각 자치기구들이 하고 있던 활동으로부터 청소년 정책 의제와 제안 도출 및 지난 2년간 청소년들이 도출해 낸 의견들을 학습 → 7월26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회차의 청소년 친화 정책 개발 포럼에 참여 및 관내 군.청.학.연 원탁회의에도 함께 참여 → 8월에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지도를 그려보기 위한 상상 캠프 진행 → 올 해 활동과 의
--

7) 참고로 군산의 경우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시 의원과 청소년이 함께 논의하여 만든 사례가 있다.

8) 영역(분과)은 총 5가지로 구성된다. 그 다섯 가지는 인권참여 영역, 문화 영역, 경제 영역, 복지 안전 영역, 교육진로 영역이다.

제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며 토론하는 청소년 참여 포럼(9월1일 진행 예정) → 이 모든 과정들을 자료집으로 묶어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소통 및 활동을 할 예정

일회적이거나 단편적이며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식 접근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기반하고, 참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적(Movement)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는, 청소년(전기, 후기) 세대 의견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 목포 사례의 경우에서 행복자치 위원회는 키움위원(초등), 빛길위원(중고등), 세움위원(대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는 청소년 세대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 활동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에 활동을 시작한 위원이 대학생이 되어서까지도 활동을 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심리사회적인 측면 등에서 성장이 있을 것이다.

한편, 활동 사례를 보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청소년 행복 의견함에 많은 내용이 들어오는지,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과 같은 그 과정이 궁금했다.

3. 오늘 토론에서 말하고 싶은 몇 가지 제안과 화두

이 장에서는 목포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군산에서 본인이 실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 및 화두를 던지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산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집행해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진짜 참여를 담보할 것이다.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예산서를 살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제안은 예산과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것이다. 사실, 청소년들이 정책이나 의제를 제안할 때, 가장 지치는 것 중 하나는 자신들의 제시한 정책과 의제들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음일 것이다.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참여 담보와 정책 및 의제의 반영은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행복 마을을 만들어가는 초석이자 기본이 될 것이다.

둘째,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학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은 교육 정책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지.자.체와 지역교육청 및 청소년 주체들의 긴밀한 소통 체계, 정책 제안과 평가 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다양한 주체 및 조직이 함께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자치기구,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정책까지 연결하여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동아리, 자치기구 회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할 지도자들이 더욱 필요하다. 몇 년 전 청소년 분야에 창의적체험활동 바람이 불었다. 학교 교육 과정의 개편에 따라 자율, 봉사, 진로, 동아리 활동을 학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그 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박사는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 연계 모델을 제안하셨던 것 같다. 이제는 그와 더불어(또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청소년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은 자신의 삶과 밀접히 관련 있는 정책이나 제안활동 및 사회 참여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정책 제안을 통해 지역 기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봉사활동이 될 것이며, 이런 과정 가운데 다양한 조사, 토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하다 보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데 주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과 비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을 둘러 리 세우는 참여가 되면 안된다. 이미 어른들이 다 결정해 놓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안된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문제와 삶에 청소년 당사자들이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하며, 비청소년들 역시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라든지, 사춘기나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틀 안에 청소년들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이는 청소년 스스로 자각할 뿐 아니라, 비청소년들이 가슴 깊이 새겨두어야 할 가치와 철학이다.

4. 나가는 말

청소년이 상상하는 마을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이번 토론문을 작성해 보았다. 사실 주제는 의문문이었지만, 그에 대한 내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⁹⁾ 청소년이 상상하는 마을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어야 하며, 환경이나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청소년과 비청소년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는 앞선 제안에서 언급을 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의 청소년자치기구나 동아리부터 시작하면 된다. 여기 있는 우리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리 독립 청춘>의 배지영 작가는 영화 <암살>에서 독립운동가 안옥윤이 한 말인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를 인용하면서 ‘균열’이라는 단어를 말한다. 소도시 청년들이 뜨겁게 살아가는 얘기를 쓴다 한들 지금 당장 바뀌는 건 없다는 것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것들이 자꾸 균열을 일으켜 언젠가는 궁극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을 이제 겨우 하나 진행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 파생될 또 다른 균열을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 균열이 언젠가는 진짜 청소년들의 참여가 담보되어, 자신들이 상상하는 마을과 지역사회를 만드는 그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9) 요즘 ‘답정너’라는 신조어가 있다. 이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응’이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는 의미의 말 줄임 신조어이다.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인 쇄 2017년 7월 28일
발 행 2017년 7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ream Hub
 GUNSA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자치연구소


 YMCA
 목포시청소년수련원
 Mokpo Youth Center